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보은군 회인면 부수권역 '하얀민들레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반영운 · 윤중석 · 우혜미^{*} · 한경민^{**} · 백종인^{*}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충북대학교 대학원 환경도시공학과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Resident-Driven Rural Village Plan Based on Ecological Rural Amenity: Focused on Busu Area, Boeun-gun, South Korea

Ban, Yong Un · Youn, Joong Shuk · Woo, Hye Mi^{*} · Han, Kyung Min^{**} · Baek, Jong In^{*}

Dept. of 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Environmental and Urba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has intended to devise a comprehensive rural planning, driven by residents based on ecological rural amenity paradigm for Busu area, Boeun-gun, South Korea. To reach the goal, this study has performed the following processes. First, we have analyzed the elements of threat, opportunity, weakness, and strength in both inside and outside village through 'SWOT' analysis. Second, through strategic analysis and consultation, we have propose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Busu area. Third, based on an ecological rural amenity planning system composed of ecological economy system, ecological environment system, ecological history-culture system, ecological image system, and ecological society system, we have suggested research projects of each system. Fourth, we selected projects through a general meeting with all stakeholders. Fifth, the selected projects were applied to Busu area by village residents and experts. Finally, the projects, which were appraised and revised by experts, residents, and governmental officers, were composed of ecological scenic agriculture center, resident's site for city dweller, energy independent village, eco-road, eco-pond, ecological park and parking lot, restoration of traditional culture, zone of ecological scenic agriculture, eco-tunnel, eco-fence, landmark, corporate identity, community center, forum and seminar, and education for residents' empowerment.

Key words : Ecological Rural-Amenity, Eco-Village, Comprehensive Rural Planning, Sustainable Development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 위기의 극복을 위해 농촌 어메니티와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상향식·종합적 계획을 추구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301개 권역에서 계획부터 사업 완료까지 다양한 단계

Corresponding author : Baek, Jong In

Tel : 043-273-3391

E-mail : yahoback@nate.com

가 진행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인구수와 소득 증가, 도농교류 등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¹⁾를 발표하였다(한국정책방송, 2010). 하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 위주의 획일화, 생태성 및 공동체성 파괴, 주민의 소극적인 참여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분석을 통한 개발방향 제시 및 계획 수립(김승근, 2005; 박창범 등, 2008; 고영구, 2010; 김상범 등, 2010)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 개발 및 적용(김경량 등, 2006; 한경수 등, 2007), 주민참여 특성 분석(허주열과 이성근, 2009),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 및 중요도 설정(이한

성, 2006; 이승한과 김대식, 2010), 농촌정책 패러다임 측면의 분석(이해진, 2009),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박한식 등, 2008; 김강섭과 전택기, 2009; 조진상, 2009; 배승종, 2010) 등의 다양한 접근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개발정책의 큰 틀에서 마을(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김강섭과 전택기, 2009). 생태적 개발,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소극적인 주민 참여가 아닌 주민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상향식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부수권역을 대상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2. 대상지 일반현황 : 부수권역



Figure 1 부수권역 범위 설정도.

본 연구는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부수리(법정리 1개, 행정리 2개, 자연마을 6개)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부수리는 총 69세대 14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2.4ha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다(Figure 1 참조). 부수 1리는 0.85km²으로 향교골 마을, 우무실 마을, 아래 금거리 마을, 바락고개 마을로 구성되며, 부수 2리는 안모산 마을, 바깥모산 마을로 1.22km²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뒤로는 부수

봉이 위치하여 병풍처럼 둘러 있는 마을이며(Figure 2 참조)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²⁾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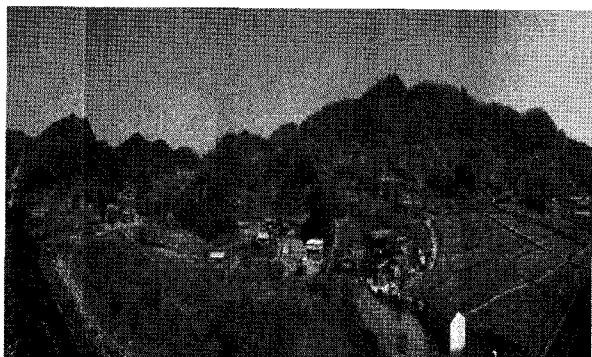


Figure 2 부수권역 전경.

주요 재배 작목은 벼와 콧감을 특화하고 있으며, 고추, 배, 대추, 옥수수 등을 생산하고 있다. 벼와 옥수수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경관농업을 위해 백련과 하얀민들레를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이 중 벼와 콧감은 직거래로 출하하고 있다.

역사·문화 행사는 사직단제, 오장환 문학제, 쥐불놀이, 단오놀이, 산신제, 장승제 등이 있으며, 회인향교, 보은 부수리 유물 산포지 3개소, 아미산성, 상현사, 고분군, 보호수 32호 등의 역사·문화 자원이 있다.

개발위원회, 노인회, 부녀회, 환경발전위원회, 청년회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공동체 잔치, 향우회 활동 등의 마을 공동체 의식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작목반과 영농조합을 통해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부수리를 권역으로 선정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생활권 및 영농권이다. 부수 1리와 2리는 오래 전부터 같은 마을로서 역사와 유래가 동일하며, 부수봉이 병풍처럼 둘러 있는 마을로서 같은 들녘에서 농사를 짓는 동일 생활권 및 영농권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생태적 마을 조성에 적합한 환경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관계로 자연·경관·문화·역사 자원이 잘 보전되어 있다. 특히, 물, 토양, 공기의 질이 매우 뛰어나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이라는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어 마을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생태마을 조성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생태마을 조성을 통해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및 주민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셋째, 우수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교통 접근성은 상주~당진 간 고속도로 회인 IC 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Table 1 부수권역 자원 현황 및 자원 분포도

위치	구 분	자원명	자원 현황			
부수 1 리	자연자원	하 천	매봉산세천		회인천	
		정자목	느티나무			
		마을숲	아미산 국화배미 향교골 탑사리 뒤배미 부수봉	아래숲거리 위꽃 부수봉	장도래 윗꽃 꽃재	토망골 독박골 바라고개
	농업자원	산지자원	아래숲거리 윗꽃	바라고개 위배미	우무실 국화배미	장도래 독박골 꽃재
		지역특화농업	배	곶감	복숭아	고추 콩
	관광자원	산지관광자원	아래숲거리 윗꽃	바라고개 뱀날	꽃재 독박골	아미산성 뒤배미
부수 2 리	자연자원	역사문화 자원	아래숲거리	탑사리		아미산성
		문화재			회인향교	
		하 천	옥수풀		수박골	세터풀
		지질자원	고래실논			
		정자목	참나무(4그루)			
	농업자원	마을숲	부수봉 칼바위 생태연못 꽃재	산제당 등산로 왕재 뒷동산	부수단하 만석바위 구르미 뒷가마터	선반다리 웃샘 청천골 못뚝
		생활환경 자원	전통구조물 교육자원	마을자랑비 생태교육관	돌탑	거북바위 생태연못
		산지자원	부수봉 만석바위	애장터	칼바위 거북바위	부수단하 대왕바위
		지역특화농업	전통곶감	검은포육수수	마늘	단호박 연근
	관광자원	산지관광자원	부수단하 생태연못	칼바위 생태정화시설	선반다리 1·2·3등산로	거북바위 종산
		역사문화 자원	애장터		유물산표지	장군릉
	전통구조물		산제당			마을유래비
자원 분포 도						

통이 이루어져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5번 일반국도를 통해 인근 대도시인 대전, 청주 지역과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하다. 의료, 복지, 교통, 문화시설 등에 20분 내로 접근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넷째, 주민들의 지역개발추진의지 및 사업경영능력도 우수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부수리 주민들은 뛰어난 단결력과 추진력을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마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전문가 면담을 자주 실시하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총 301개³⁾ 권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목적, 법적 기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 사업을 탈피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여, 기초기반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촌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소권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로 농촌공간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꽤적인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및 도·농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 38조에 근거하고,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 24조 내지 제 39조에 준용하고 있다.

2000년대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마을) 개발, 복지, 삶의 질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이해진, 2009) 있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러한 농촌개발정책 패러다임에서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권역사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포함, 주민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토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형태, 지역개발 파트너십 체계 구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조진상, 2009).

권역사업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포함의 특성

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적 측면에서 지역특성화 계획 및 개발과 절차적 측면에서 주민주도의 파트너십 체계 구축은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 농촌어메니티적 측면

농촌어메니티는 다차원적인 가치를 지닌 농촌환경의 속성이나 감성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조순재, 2003)으로 지속가능성, 생태성, 경제성 및 주민의 삶 향상을 가치를 추구한다(반영운 등,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살펴보면 농촌의 환경적, 경관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 등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고 다원적 기능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한경수 등,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어메니티적 관점⁴⁾에서 살펴보면 어메니티를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로 활용하는 복합적 농촌개발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현호와 오은주, 2007). 농촌어메니티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의 주요사업 및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도농 상생을 실현하기 위한 농촌 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농촌개발 사업은 계획과 집행함에 있어 지속가능성⁵⁾보다는 지역활성화 측면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반영운 등, 2008). 다시 말해 국내 농촌어메니티 실천사례는 낙후지역에 대한 역발상, 문화로 시작되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 시도로 파악될 수 있다(전영옥, 2003).

관료주의적 농촌지역개발 정책 생산 구조로 인해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이고 차별성과 특색 없는 유사한 사업을 양산하는 문제를 지적받곤 했다(이해진, 2009). 또한 시설과 소득사업 위주의 농촌지역개발정책은 사회적 배제의 메커니즘을 발생시킬 수 있다(Shucksmith, 2000; 이해진, 2009).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이 지닌 주거, 문화, 농업, 역사, 자연, 생태의 다원적 가치들이 ‘개발’의 가치로 단순화될 위험에 노출된다(이해진, 2009). 특히 경제적 가치 창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농촌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6)에서 시·군 지자체별 지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역개발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는 개발정책 중심의 정책면향 현상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 주민참여적 측면

절차적 측면에서 주민주도의 지역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의 기본원칙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주도하에 계획, 시행,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예비계획서 작성과정의 의견제시 방법 중 마을회의 참석이 46.2%, 마을지도자 또는 추진위원회를 통한 의견개진 32.0%,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1.3%로 나타나 예비계획과정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무관심도 나타났다(허주열과 이성근, 2009).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이 예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과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의 지향하는 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4)의 연구에서는 마을개발사업이 진행된 20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착수단계부터 관리운영단계까지 주민의 참여형태를 분석하였는데 착수단계에서는 공무원의 주도하에 마을선정이 이루어졌으며, 계획단계와 시행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관리단계에서는 지도자나 위탁경영자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따라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부분적으로 상이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대부분 주민주도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참여가 있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개발사업의 목적에 맞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착수단계부터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계획하고자 한다.

2.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농촌어메니티의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농촌어메니티의 다원적인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를 내포하는 큰 틀에서 세부계획 요소를 도출하는 형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위한 개념적 틀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는 반영운 등(2008)에서 제시한 개념, 영역, 계획요소(향상방안)을 이용하여 정의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2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영역, 전략, 계획요소

영 역	전 략	계 획 요 소
생태경제 시스템	경제기반 다양화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유통방식의 개선,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확보(다양한 소득원의 확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 구축
	귀농인유치, 관광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창출	생태(녹색)관광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 구축,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귀농인 유치를 통한 인적자원 발굴
생태환경 시스템	에너지자립형생태건축 기법 도입	향일조권·조망 등을 고려한 택지조성, 자연 및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소재 사용, 에너지 효율 경제성을 고려한 난방시설 설치, 단열재사용
	생태적 오염관리 시스템 구축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퇴비화시스템 구축, 생활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생활오염물질 배출시스템 구축, 수질관리 및 경관을 위한 자연정화 시스템 구축, 물 사용 최소화 및 분뇨 퇴비화 화장실 구축
	생태적 실천협약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 실행(환경 친화적 실천 협약)
생태역사·문화 시스템	역사문화자원관리 및 계승	역사인물 기록 및 유적 관리, 마을고유문화계승(놀이, 축제 등), 마을전설 및 설화 발굴과 전수
	인적 네트워크구축	문화예술인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출향 유명사회인사 네트워크 구축
생태이미지 시스템	협약체결 및 마을 대표이미지 창출복원	마을이미지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경관농업 육성, 마을대표 촉감 창출 및 복원, 마을대표 향기 창출 및 복원, 마을특성을 반영한 대표음식 개발 및 전수
	마을 특성을 반영한 이미지 창출 및 관리	마을특성을 반영한 이미지 창출 및 관리(CI 개발 포함)
생태사회 시스템	교육·교류·참여 시스템 구축	다양한 주민교육 시스템 구축, 도농교류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농촌기업·지자체·정부의 협력과 연계강화,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개발, 마을 공동체성을 고려한 공동시설 배치, 기반시설의 확충 및 치안 강화
	마을자체역량강화 및 운영원리 확립	마을자체 주민회의 운영(주민협의체 운영), 마을 자체 발전계획 수립, 마을 자체 내규 공유 및 실천, 농촌 조직의 리더십 강화(지도자의 선도)
	홍보 및 접근성 강화	정부의 지원, 홍보시스템 구축(주민홍보 강화), 접근시설의 다양화(대중교통, 보차 분리, 주차장 등), 노후주택 보수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는 생태마을과 농촌어메니티가 조화·발전된 개념이며, 지속가능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고유의 환경(생태), 경제, 사회, (역사)문화적 매력과 그 매력의 창출과정 및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총체적인 마을의 지속가능성 확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가치창출, 도농교류 실행 등을 통합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는 생태성, 경제성 및 주민의 삶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지속가능성은 경제, 사회, 환경의 요소로 구성되며 세요소의 조화를 지향한다.

생태적 농촌어메니티는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이미지 등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영역별 주요전략 및 계획요소는 Table 2와 같다. 환경 분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향·일조권·조망 등을 고려하여 택지를 조성,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혹은 마을을 만드는 것, 녹지, 수변공간의 오염원을 제거하고 생활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 수질관리 및 경관을 위한 자연정화 시스템 구축, 환경 친화적 생활양식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있다. 역사·문화 분야에는 지역의 역사인물 기록 및 유적 관리, 마을고유 문화계승, 마을전설 및 설화 발굴과 전수하는 방안이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주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기업·지자체·정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정보 및 지원을 공유하며, 기반시설을 강화하여 마을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이미지 분야에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연·경관 등을 부각시켜 마을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창출, 경관농업 육성, 마을대표 축감·향기 창출 및 복원, 마을 특성을 반영한 대표 음식 개발 및 전수하는 방안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환경농업 및 유기축산, 유통방식의 개선, 다양한 소득원의 확보, 안정적인 재정수입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

구축, 생태 관광 및 농촌 체험프로그램 구축,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귀농인 유치를 통한 인적자원 발굴하는 방안 등이 있다.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정부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탈피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을 지향하고 있다.

주민참여에 대해서 Table 3과 같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Smith(1973)는 주민참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첫째, 주민참여가 합리성의 측면에서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소그룹의 경우 주변 환경 여건에 대해 더 깊고 풍부한 정보와 판단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합의 형성의 측면에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서 만들고 추진하는 계획은 권위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단순한 권력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개인이 계획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주변 환경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는 사업집행을 주도하는 차원에서 마을주민들이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허주열과 이성근, 2009).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지역 주민은 권역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마을개발 협의회 참여, 예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명예 공사감독 운영, 유지관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다(이해진, 2009).

Table 3 주민참여의 개념

연구자	개념
Verba (1967)	정책결정자의 추원 또는 정책에 다소간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Huntington and Nelson (1976)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Cahn and Paseet (1971)	시민 권리의 범정의서 현재 정치적·경제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이 앞으로 정부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의 재분배
Arnstein (1969)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위한 전략
Parry and Day (1992)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부 관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행동하는 것

* 자료 : 허주열과 이성근, 2009, 저자 재정리

III.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방법

1. 계획의 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발전방향 설정과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사업계획 수립의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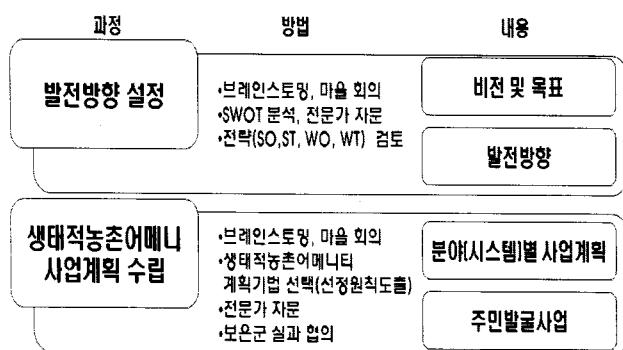


Figure 3 부수권역 계획과정.

발전방향 설정은 비전 및 목표, 발전방향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마을의 일반현황을 토대로 마을의 발전방향을 도출하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수권역의 지역주민이 마을 회의에서 브레인 스토밍 기법⁸⁾을 활용하여 마을 내부의 강점, 약점과 외부적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자문 그룹은 일반현황, 문헌조사를 토대로 마을 주민의 제시한 내용을 SWOT 분석의 틀에 맞게 분석·정리하였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SO, ST, WO, WT 전략을 도출하고 주민과 전문가 그룹의 회의를 통해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략을 마을 발전방향의 기본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사업계획 수립은 크게 분야별 사업계획과 주민발굴사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사업계획은 5가지의 사업선정원칙⁹⁾을 바탕으로 Table 2에서 제시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계획요소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매뉴얼을 바탕으로 주민이 사업요소를 도출하였다. 주민발굴사업은 주민회의에서 주민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주민이 하고 싶거나 해야 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민에 의해 도출된 분야별 사업계획과 주민발굴사업은 전문가와 관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영역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범주별로 사업계획을 정리하였다.

2. 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본 연구는 주민주도적 참여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Figure 4 하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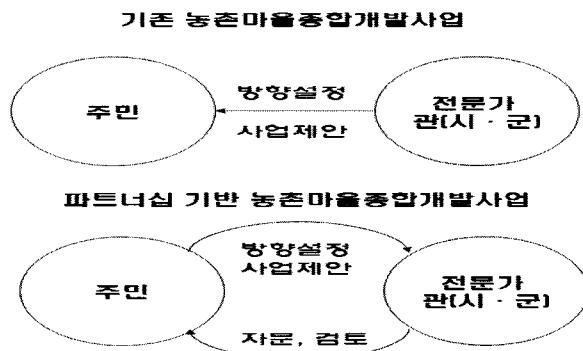


Figure 4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

Table 4 회의 주요내용

일시	장소	인원	주요내용	비고
9.26	부수1리 회관	8명	부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협의	회의
9.28	마을 전역	4명	부수권역 사업개발을 위한 현장답사	현장 답사
10.4	부수1리 회관	9명	부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방향	회의
10.7	부수1리	5명	부수권역 사업개발을 위한 현장답사	현장 답사
10.8	부수1리 회관	7명	부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수정	회의
10.9	부수2리	5명	부수권역 사업개발을 위한 현장답사	현장 답사
10.15	부수1리 회관	12명	부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	회의
10.19	부수2리 회관	12명	부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보정	회의
10.21	부수1리 회관	12명	부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확정	회의
11.16	부수1리 회관	6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안) 자문수렴	회의
11.23	부수1리 회관	7명	사업시행 단계별 협의·지원(보은군, 농촌공사와의 협의, 기업 자매결연)	회의

먼저 주민들 간 수차례에 걸친 마을 회의를 진행하고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을 통해 마을의 발전방향과 사업

계획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제시하였다.

Figure 5, 6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들은 도출된 의견을 글, 다이어그램, 도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여 Table 4와 같은 다양한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나 관에 의해 계획이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 주도적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Figure 4의 하단과 같은 형태로 주민과 전문가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여섯 단계의 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평가하고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의 전문가의 역할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주체의 역할을 했다면 본 연구에서의 전문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에 따라 주민주도적 상향식 사업이라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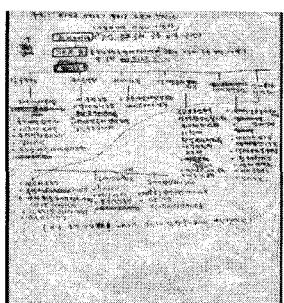


Figure 5 마을 발전방향
주민 작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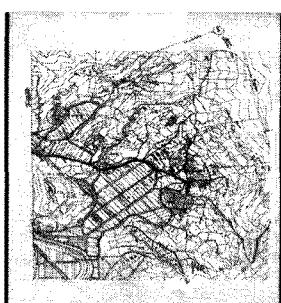


Figure 6 마스터플랜
주민작성 도면.

IV.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1. 발전방향 설정

대상지의 특성에 기반한 개발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부수권역의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참조). 부수권역이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마을사람들 및 관광객, 소비자들에게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즉 강점, 약점은 부수권역의 내적영향요인인 작물, 환경, 역사자원, 주민의식수준, 경제 등의 부분에서 조사되었고, 위협, 기회는 부수권역의 외적영향요인인 접근성, 접근대안, 법/제도, 주변발전추이 등에서 조사되었다.

부수권역의 강점요인은 감(곶감), 하얀민들레를 이용하여 마을의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관농업과 우수한 특작물의 질을 활용하여 마을의 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권역의 환경, 경관, 자연자원 등이 우수하다는 점 등이 있다. 약점요인은 특별대책지역으로 마을의 발전이 제한되는 점과 작물의 품질은 뛰어나나 판로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 인력부족과 고령화, 부수입원이 확실하지 않은 점, 접근 교통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기회요인은 고속도로가 차후 개통되어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이 증가하는 점과 특별대책지역으로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보존이 우수하다는 점이 있다. 위협요인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환경이 훼손될

Table 5 부수권역의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	약점요인(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산물의 질이 우수하여 생산의 경제환경이 뛰어남 주작물(감)과 토종화귀식물(하얀민들레)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경관적으로도 우수함 전통주거형태(돌기와집)에서 특이성, 생태성, 전통성이 있음 주민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 참여가 우수하며 단결력이 우수함(공동체의식이 뛰어남) 다양한 식생, 자연, 인문환경, 역사, 교육 등의 자원이 고루 존재함 깨끗한 공기, 맑고 넉넉한 물, 비옥한 토양, 소음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수자원이 매우 우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대책지역으로 제약요인이 많음 확실한 마을 공동 약속이 없어서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 에너지 및 물질 순환이 원활하지 않음 인구감소, 노령화, 공가 증가 정보 인프라 및 교육 부족 난방, 취사, 농업 등 에너지지 사용에 있어 자립적이지 않음 소득기반이 다양하지 않음(명확한 부수입원이 존재하지 않음) 농산물의 생산은 다양하나 판로가 다양화되지 않음 도로, 농로, 수로, 등 마을의 축이 생태적인 모습이 아님 접근교통이 다양하지 않음
기회요인(Opportunity)	위협요인(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도로의 통과로 인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외부인에게 노출기회가 증가함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 계획이 부재함(경관, 수순환 등)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자연자원, 경관 자원 등의 안전성이 위협받음

가능성 등이 있다.

도출된 요인들을 통해 4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는 기회와 강점을 연결하여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SO전략으로 환경농업, 경관농업, 생태 및 역사·문화 복원, 생태·경관주거 환경 조성, 주민교육, 역사·생태교육 및 체험장, 생태에너지 등의 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점으로 위기를 제거하는 ST 전략으로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농업, 생태적 주거환경, 수축(공간)활용, 환경농업 등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약점을 보완하고 기회를 이용하는 WO전략으로 환경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농업, 경관농업, 생태 복원 등의 기법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위협요소는 피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WT 전략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 계획(협약), 생태에너지, 부수입원 개발 및 직거래 등의 기법을 제안할 수 있다.

도출된 각 전략은 주민과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SO(강점·기회)전략이 선정되었다(Figure 7 참조). 왜냐하면, SO 전략은 생태적 농촌어메니티가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한 최적의 전략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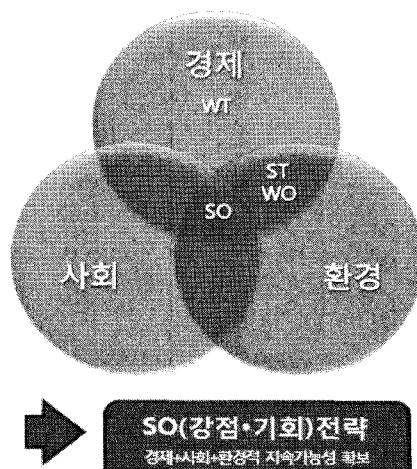


Figure 7 SO 전략.

부수권역의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도시와 농촌, 경관과 농업,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하얀 민들레 어울림 생태마을”로 구상하였다(Figure 8 참조).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제분야에서 경관과 생태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경제를 실현하여 생태적 생산활동을 보장한다. 둘째, 환경분야에서 길과 물을 중심으로한 농촌다음

을 실현하여 생태적 정주공간을 조성한다. 셋째, 사회분야에서 도농교류 기반을 마련하여 생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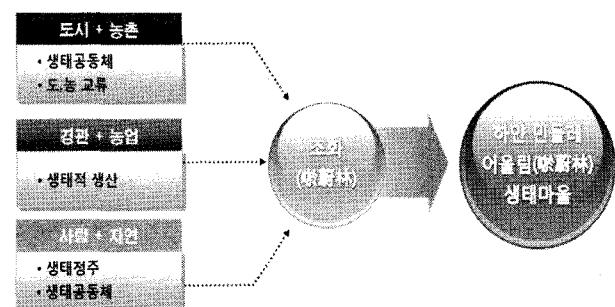


Figure 8 부수권역 비전.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하얀민들레 어울림 생태마을의 기본방향은 지역의 특성, 경제, 자연 생태계, 주민 공동체 의식 등과의 조화, 생태적 삶의 영위를 통한 풍요로운 농촌건설,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 수질보전의 모범적 생태마을 모델 개발로 구성된다.

좀 더 구체적인 부수권역의 발전방향은 생태경제(경제), 생태환경(환경), 생태 공동체(사회) 분야에서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룬 마을로 Figure 9와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한다. 생태경제 분야는 마을경관의 생태적 이미지 창출(생태이미지 시스템) 및 생태 농업 기반 확보(생태경제 시스템)를 통한 생태경제 기반확보하고 생태마을 전파를 시도한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생태적인 정주공간을 조성하고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여 환경부하를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생태환경 시스템). 생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주민 역량 강화(생태사회 시스템) 및 역사·문화 정체성 확보(생태역사·문화 시스템)를 통하여 마을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도시민과의 적극적인 교류(생태사회 시스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상생의 생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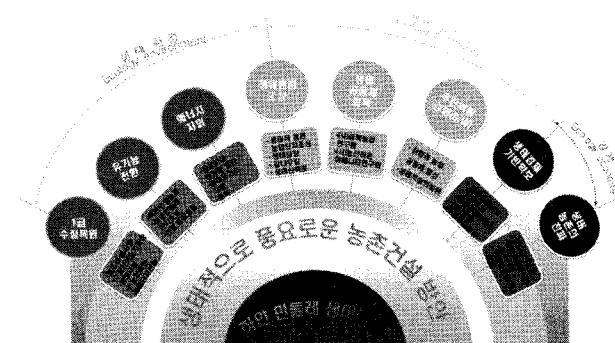


Figure 9 부수권역 발전방향.

2.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사업계획

생태적 농촌어메니티의 5가지 시스템별 계획요소 중 주민, 전문가, 관의 협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15개의 사업계획을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6, Figure 10 참조). 첫째, 생태경제 시스템으로 경관 농업 센터를 조성하여 지역특산물을 홍보·판매하여 주민의 소득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감파기 체험, 하얀 민들레를 이용한 다도 체험, 생태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민 정주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귀농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둘째, 생태환경 시스템으로 정부의 일반보급사업 지원¹⁰⁾을 받아 친환경에너지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을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공급을 담당하여 지속적인 마을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마을진입 고속도로사면에 하얀 민들레와 함께 50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랜드마크 효과를 부여하고, 커뮤니티 센터, 감 센터에 각각 50Kw, 20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게 하였다. 꽃재나 웃글샘, 향교 등의 마을 자원을 중심으로 황토 보행자길, 생태 산책로를 조성하여 데이트 코스, 건강을 위한 조깅코스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미산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든 쉼터, 이정표 등을 만들고, 기존 등산로와 연계하여 철쭉, 영산홍 등의 야생화를 식재하여 테마를 부여하는 등 생태적인 등산로를 조성하여 경관 감상 및 역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마을의 생태계 유지 특히, 비점오염원의 저감과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하여 마을의 친환경 사업의 실천을 입증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종산을 어린이 놀이시설, 잔디썰매장, 정자 등이 있는 진달래 동산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교육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하였고, 생태적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미관적/경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생태 역사·문화 시스템으로 전통 샘터, 아미산 성의 성황당 터, 탑사리의 탑, 용왕재 터 등을 복원하여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생태이미지 시스템으로 감나무, 하얀민들레, 백련 등을 마을의 길과 마을 곳곳에 식재함으로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상징적 이미지를 전달하며, 으름다래와 머루를 이용한 생태터널, 생태 담장을 통해 생태마을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태양광전지판, 아미산 전망대를 통해 마을의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다섯째, 생태사회 시스템으로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인 마을 발전의 활로를 유지·확장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중심형 농촌관광 운영교육을 통하여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자체적으로 권역의 모든 시설, 사업 등의 운영·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V. 결 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어메니티와 주민주도적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농촌개발정책이다.

본 연구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추구의 내용적 측면과 주민주도의 파트너십 구축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촌어메니티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세부계획요소를 도출하는 형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은 생태적 농촌어메니티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민주도하고 전문가와 관이 보조하는 형태의 계획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브레인스토밍, SWOT 분석 등을 실시하고 SO 전략을 도출하여 “하얀민들레 어울림 생태마을”로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계획요소를 시스템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계획요소는 에너지 자립, 경관 및 생태농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마을 정주공간의 생태성 확보, 주민역량 강화 및 도농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민 정주 단지 조성을 통해 귀농인 유치를 위한 노력도 포함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내용적으로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절차적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계획을 지향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은 마을 현황분석, 지역특성 및 잠재력 분석, 발전방향 및 사업계획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이러한 내용들이 단계 간 긴밀한 연계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적 틀에 기반한 논리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마을의 내적 외적인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략을 도출하고 그 전략에 기반한 발전방향 도출 및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 농촌어메니티의 근간인 생태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종합계획

Table 6 부수권역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시스템별 사업계획

구 분	사업 범주	사업계획내용
생태경제 시스템	-마을주민 소득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경관농업 센터
생태환경 시스템	-생활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립 마을(태양광 에너지) • 생태 길(이야기가 있는 길) • 생태연못(수질정화습지) • 생태공원 및 주차장
생태 역사문화시스템	-생활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복원
생태이미지 시스템	-마을경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 경관농업 단지 • 생태터널(으름다래, 머루) • 생태담장 • 랜드마크(Landmark) • CI(Corporate Identity) 개발
생태사회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 지원 -마을주민교육 등 S/W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정주 단지 조성 • 커뮤니티 센터 • 간담회 및 세미나 • 주민역량 강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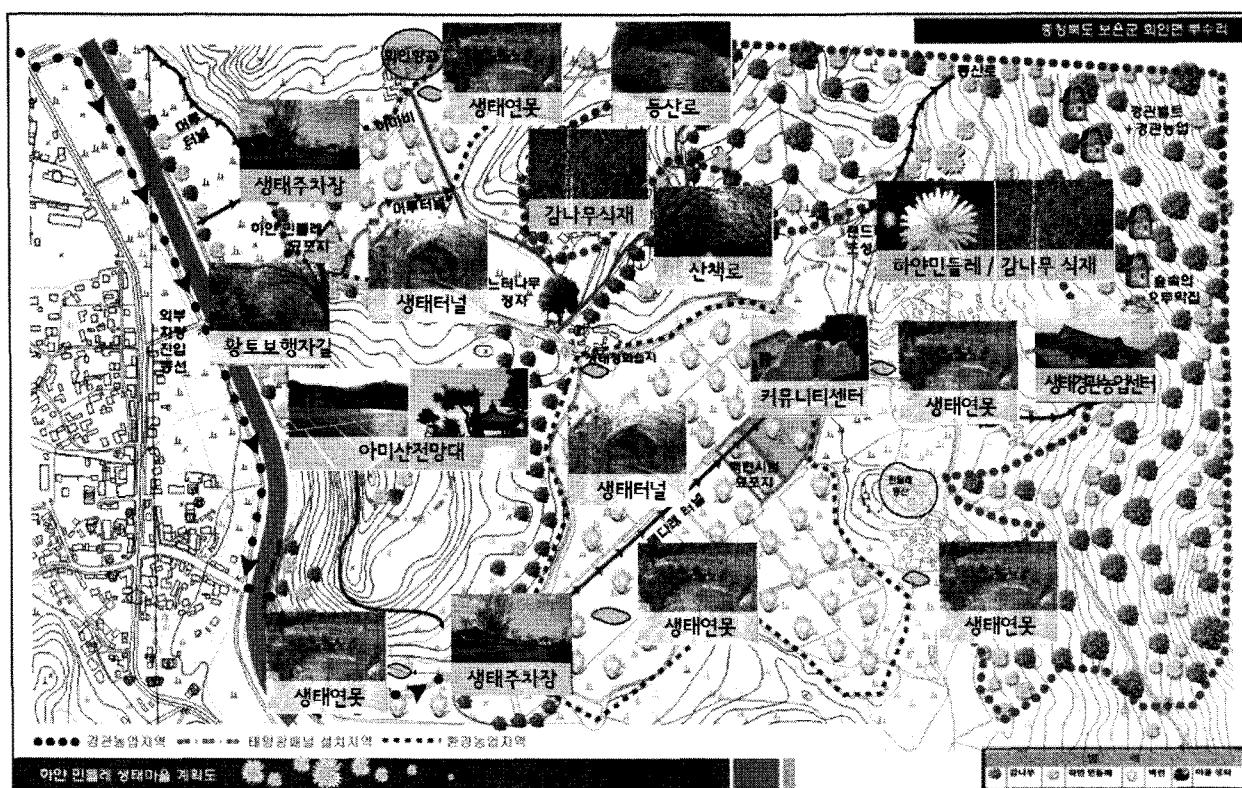


Figure 10 하얀 민들레 생태마을 Master Plan.

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저감, 자원 절약 및 순환, 폐기물 최소화, 물순환, 생태 농업, 생태 복원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뿐만 아니라 심사 시 마을 현황 파악 부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생태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 인증서를 이용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를 생태성 확보 차원으로 확대하여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절차적으로 형식적인 주민참여가 행해지고 있으며 관료주의적인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주체여야 하는 주민은 역량부족, 생업 등으로 인해 계획에서부터 운영·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쉽게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및 기법을 개발하고 지역 전문가와 1:1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관료조직은 행정편의 보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사업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생태적 활용, 경제성 창출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 주도적 참여 등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농촌마을개발사업 추진 시 정책의 취지에 적합한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의 정량적인 경제성 분석,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개발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07년도 보은군에서 발주한 “부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의 일부임. 또한 한국지역개발학회 2010년 하계종합학술대회 때 발표한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기반 농촌마을종합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임.

주1) 농림수산식품부는 36개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27개권역에서 평균 9억9천7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소득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소득이 연간 2천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객 수가 2004년 1백2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4백38만명으로 나타나 연평균 28.7%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2004년부터 2009년 사이 전국 면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연평균 1.18%인데 반해 이들 권역의 인구감소율은 0.78%로 나타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총면적 700.7km²로 대전시 1구, 충북도 3군 11읍·면(대전시 동구, 충북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일부)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보은군은 회남면, 회인면(갈치리를 제외한 전역)이 포함되어 있다.

주3) '05착수 36권역 준공, '06착수 20, '07착수 40, '08착수 40, '09

착수 40 계속사업, '10착수 45권역 실시설계, '10선정 80권역 기본계획수립

주4)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교통망 확충 등 사회적 여건 변화로 전원주거·휴양·관광 기능을 갖춘 폐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복합생활공간으로 농촌이 인식되고 있는 여건에서 농촌 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김강섭과 전택기, 2009).

주5)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발전(Economic Growth), 사회 정의(Social Justice),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로 구성된다(Connelly, 2007).

주6) 생태마을에 대한 기준의 정의(녹색연합, 1999; 이제준, 2001; 김귀순, 2003)를 살펴보면 마을 주변의 생태계와 조화되며, 자원, 에너지, 경제적으로 자립되고 지역의 역사, 문화적으로 안정된 공동체라 하고 있다.

주7) 농촌어메니티의 가치영역은 지속가능성, 생태성, 경제성 및 주민의 삶 향상 부문 등에서 이루지며, 생태마을은 경제, 사회, 환경적 영역에서 자립성, 순환성, 다양성, 안정성을 추구하고 지속가능성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반영운 등, 2008).

주8) 일반적인 토론의 방법에는 소집단 대안 만들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 돌아가며 발표하기(Round Robin) 등이 있으며(차명호, 2005),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주제나 아이디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창출되도록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를 통한 아이디어 생성방법인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9)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주민의 소득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중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두루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주민 동의하에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 마을 내 또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업, 생태적 농촌어메니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주10) 에너지 관리공단 ‘2007년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지원공고’ 참고, 일반보급사업 지원비율 : 최대 60%, 태양광 발전설비 고정식 설치단가 : 9,550천원/Kw

참고문헌

1. 고영구, 2010, 이천시 서경권역의 특성분석과 개발 방향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5, 37-60.
2. 김강섭, 전택기,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1(4), 59-66.
3. 김경량, 최윤상, 홍성규,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평가체계 개발, 농촌계획, 12(2), 65-73.
4. 김귀순, 2004, 세계의 생태마을을 찾아서, 누리에.
5. 김상범, 김은자, 이승연, 이승주, 임창수, 이상영, 201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마을계획에 관한 연구 -양양군 서면 서림리 해담마을을 사례로-, 농촌지도와 개발, 17(1), 1-23.
6. 김승근, 2005,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 관한 연구 -충북 감곡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3), 19-26.
7. 김현호, 오은주, 2007,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23, 26, 36-49.
 8. 녹색연합, 1998, 한국환경보고서.
 9.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주민참여계획모델에 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10.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6, 시군지방자치단체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농촌개발정책, 농촌진흥청, 99-100.
 11. 박창범, 서향순, 김태영, 2008, 혼불문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마을의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를 중심으로-,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2), 1-8.
 12. 박한식, 황길식, 김영택,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내용분석과 시사점 -'04-'07년 사업대상지 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4), 121-128.
 13. 반영운, 정재호, 백종인, 2008,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향상 방안, 농촌계획, 14(4), 33-45.
 14. 배승중, 2010, 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농촌계획, 16(3), 173-184.
 15. 이승한, 김대식, 2010, AHP법을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항목별 중요도 설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6(3), 43-49.
 16. 이재준, 2001, 생태마을 사례분석과 전문가 및 거주자 의식조사를 통한 계획방향 설정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vol.36(6), 23-39.
 17. 이한성, 2006, AHP를 이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기준의 설정, 농업경영·정책연구, 33(1), 183-197.
 18. 이해진, 2009,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사례로-, 농촌사회, 19(1), 7-47.
 19. 전영옥, 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8-10, 16-22.
 20. 조순재, 2003,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마을개발 모형, DDA대응 농촌경제 활성화 어메니티자원개발 심포지움 발표 자료집, 161-184.
 21. 조진상,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구례 방광권역 주민소득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5(4), 109-124.
 22. 차명호, 2005, 토론 및 토의 방법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9, 207-217.
 23. 한경수, 김기현, 전택기, 엄대호, 최윤상, 200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간 점검을 위한 평간지표 적용 사례, 농촌계획, 13(2), 121-132.
 24. 허주열, 이성근,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 -경상북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21(3), 45-70.
 25. Cahn, E., Paseet, B.,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
 26. Connelly, S., 2007, Mapping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Contested Concept, Local Environment, 12(3), 259-278.
 27. Huntington, S., Nelson, J., 1976,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oston: Harvard Univ. Press.
 28. Parry, G. M., Day, N., 1992, Political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Britain, Cambridge Univ. Press.
 29. Shucksmith, M., 2000, Endogenous development, social capital and social exclusion: perspectives from LEADER in the U.K., Sociologia Ruralis, 40(2), 208-219.
 30. Smith, D., 1974, Amenity and Urban Planning, London: Crosby Lockwood Staples.
 31. Verba, S., 1967, Democratic Participation,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ety Science.
 32.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33. 한국정책방송, 2010. 7. 13일 방송자료.

접수일: (2010년 6월 28일)

수정일: (1차: 2010년 7월 20일, 2차: 9월 5일

3차: 12월 19일)

제재확정일: (2010년 12월 19일)

■ 3인 익명 심사필